

프란치스칸의 삶

하느님께 맡기는 삶 (By Francine Gikow, OFS)

“서약 은 서약을 하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자신에게 속해있지 않고 하느님께 모든 권한을 드리고 하느님의 섭리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행위이지만 이것은 하느님께 온전히 몰입됨과 온전히 증거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서약덕분에, 그는 하나님의 소유가되고 그로인해 “거룩하게 된다” .

이 말은 우리가 서약시에 하느님께 우리자신을 어떻게 온전히 드려야하는지를 Felice Cangelosi , OFM 수사님이 설명한 것이다. Trezza OFM 신부님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 a blank check (빈 수표) ” 를 하느님께 드린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얼마나 두려운 약속인가 !

우리의 삶을 우리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담당하신다는 이 서약의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때 , 결코 상상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는 결코 우리 삶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느님께서 우리 삶의 주권자이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할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분명히 하느님께 자신을 맡길줄을 알았고 , 하느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지시하시게 했다. 이것이 프란치스코 성인의 경탄할만한 것 중의 하나이다 ! 하느님께서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임무를 주셨고 , 프란치스코 성인은 자신의 꿈이었던 기사 와 영웅주의 , 쾌락등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다.

St. Paul 이 기록 한 바와 같이 "오! 하느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정녕 깊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그분의 길은 얼마나 알아내기 어렵습니까 ?" (로마서 11; 33) 오직 하느님만이 우리에게 대한 계획을 알고 계신다. 오직 우리는 하느님께서 그의 의지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삶을 봉헌해야한다.

다시 말해서 “ 그 사람은 더이상 자신에게 속해 있지않고 완전히 몰입되어 무엇이든지 하느님의 뜻대로 할 수있다고 한다면” , 지금껏 우리 자신에만 의존해 왔던 시작 단계의 우리에게는 매우 두려운 말이다. 우리 미국 문화는 독립과 자급 자족을 매우 기뻐한다.

우리가 약속한 것은 우리 사회에 가장 깊이 뿌리 박고있는 가치를 반대한다.우리가 주권 자이시고 능력 자이신 하느님께 우리의 삶을 자진해서 봉헌하는 것이 매우 힘든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고 당연한 것이다.

내 자신을 하느님께 드린다는 개념이 아름답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현실에서는 어렵고 힘든 일이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초연한 노력으로 충만한 기도처럼, 다만 우리의 서약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완전한 전이, 즉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삶이 계속되도록 희망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하느님께 드리는 지속적인 서약의 방법 중의 하나는 식별을 통해서이다. 식별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하느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존재하고 있기를 원하시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마지막 결론이다.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것은 하느님의 의지이지 우리의 의지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중에 겻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마태오 26; 39).

우리는 “ 내가 원하는 것 ” 에서 “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 ” 으로 나 자신을 버릴 줄 알아야 하지만 항상 쉬운 일은 아니다. 그것은 영적인 가난 혹은 자아 분리가 필요하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람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에 계시된 하느님의 뜻에 열려 있어야 한다.

겸손, 우리의 자아 분리는 우리의 봉헌이고 또한 우리의 희생이다.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을 속이고 특히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 무의식 중에 탐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분별의 확신을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열려 있다면 그 분별의 결과에 대한 우리의 감정에 연연해서는 안된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과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것이며 그건 진정 나의 뜻이 아닌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때때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이 식별할 수 있도록 씨름해야 하고 하느님께 그것을 희생하기 위해 노력한다.

때로는 충분한 고려 후에 내린 판단이, 그 결과가 전혀 하느님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것을 발견할 때가 있다. 때때로, 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그분의 의지 대로 함께 할 나 자신을 원하신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하느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 내 의도와 의지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그분께 중요한 것은 나의 사랑이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맡으신다면 우리의 미래의 삶은 신비이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신비!! 우리의 미래의 계획은 알 수 없는 하느님의 길로 더 자주, 더 많이 열릴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믿음 에 의해서만 발견될 수 있음을 안다. 조금씩, 조금씩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운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방법을 따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권리의 감각을 아주 서서히 벗겨 버리신다.

하느님께서 점점 커지시고 “ 나 ” 는 점점 작아진다. 하느님께서 하느님 자신을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므로 “ 거룩해 진다. ”

우리는 재속 프란치스칸으로써 하느님을 향해서 세속으로부터 초월한 회개의 삶과 지속적인 전환을 약속했다. 이 말은 하느님의 뜻대로 살기위해서 자기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자기 희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하는 것이다.

Br.Cangelosi 가 추가한 바와같이, "그들은, 복음 생활을 약속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제대위의 거룩한 희생 제물로 봉헌하는 삶이다.그것은 삶의 약속이고 삶을 위한 약속이다."